

錢乙의 醫論醫案 및 方劑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尹憲重·金容辰

I. 緒 論	222
II. 後世에 미친 影響	223
1. 學術思想의 流波	223
2. 後世에 미친 影響	224
III. 主要方劑	228
IV. 醫 論	233
1. 五臟所主	233
2. 小兒脈法	234
3. 腹中有癖	234
4. 諸疳	234
5. 虛實腹脹	235
6. 早晨發搐	236
7. 急驚	237
8. 慢驚	238
V. 醫 案	238
1. 肺熱咳嗽變證案	238
2. 脾虛發熱津傷渴飲案	239
3. 脾虛傷食泄瀉案	239
4. 伏熱吐瀉案	240
5. 脾虛中寒吐瀉案	241
6. 發熱涼下太過致成虛勞案	241
7. 傷食成癖案	242
8. 脾虛慢驚, 腎虛失音案	242
9. 驚搐發斑案	243
10. 自汗異治案	244
VI. 結 論	244
參 考 文 獻	245

錢乙의 醫論醫案 및 方劑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尹憲重, 金容辰

中文抄錄

關於錢乙的醫論醫案及方劑的研究

錢乙可稱得上爲小兒科的創始者，雖然他在小兒科領域作出的貢獻非常之大，但是至今還沒有有關錢乙的具體的研究結果可作參考。因此本人對錢乙的醫學思想及其對後世的影響，還有有關他的醫論和醫案進行了。得到了如下結論。錢乙在小兒科方面給後代的許多醫家例如明代萬全的五臟辨證，清代吳瑭的小兒體質學說及小兒科用藥論，還有近代惲鈺樹的驚風說等，起了很大的影響。他的重視五臟虛實證治與重視脾胃的思想給易水學派的醫學思想起了極大的影響，在方劑方面他主張應補益小兒的腎陰，因此而發明了地黃丸，這地黃丸爲補腎的一大法門，使他成了滋陰學派的先驅者。錢乙在他的醫案與醫論方面十分重視小兒脾胃，認爲小兒的脾胃功能不足，易虛易實，因此在辨證論治上特別重視以補脾胃爲主。

1. 緒 論

韓醫學은 우리 조상들이 수 천년동안에 걸쳐 이룩하고 이어온 소중한 民族醫學이며, 세계의학의 영역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韓醫學은 오랜 세월의 임상을 통한 체계적인 理論과 무수한 治療經驗을 갖추어 우리 민족의 건강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¹⁾.

韓醫學 理論은 陰陽五行學說의 심오한 영향을 받아 整體觀念을 主思想으로 하여 臟腑經絡의 生理와 病理를 기초로 辨證論治하는 理論體系를 갖

추고 있으며, 체계적인 理論確立은 春秋戰國時代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黃帝內經》(以下 經이라 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內經》은 春秋戰國時代에 이르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이 모두 현저한 발전을 이루던 사회적 상황에서 저술된 것으로 당시까지의 醫療成就와 治療經驗을 종합하여 韓醫學의 독특한 理論體系를 확립하였으며, 韓醫學發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²⁾.

韓醫學 發展過程에서 볼 때 兩晉, 南北朝에서 唐, 五代에 이르기까지의 醫學이 《內經》의 理論

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사의학교실 : 中醫歷代各家學說, 卷上, p. 1.

2) 印會河 主編 : 中醫基礎理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

的 기초에서 전일보하여 臨床經驗을 累積시킨 시기라고 본다면, 宋代 醫學은 앞의 臨床經驗의 기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理論上의 탐구와 발전을 진행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傷寒論》以後 약 700~800년이 경과하는 동안 臨床知識이 累積되어 疾病의 발생과 發展過程에 대한 인식, 治療 및 處方用藥의 法則把握에 대해 큰 진보를 하였으니 이들은 옛 理論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理論을 창조하여 臨床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宋代 印刷技術의 혁신은 醫學著作을 다량으로 출간케 하였으니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醫書를 校訂, 刊行하거나 醫家 개개인이 허다한 연구와 저술을 하여 古醫籍을 정리하거나 方書를 編著하거나 專門書를 저작하여 醫學發展에 기여하였다⁴⁾. 이 시기 醫學各科의 成就是 이미 病因學, 診斷學에서 발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臨床各科 또한 크나큰 성과를 거두어 저명한 專門醫家 및 專門書籍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竇漢卿이撰한 竇太師全書(瘡瘍經驗全書), 李迅의 集驗背疽方 등과 같은 外科專門書, 陳文中이撰한 幼幼新書, 錢乙이撰한 小兒藥證直訣 등과 같은 小兒科專門書, 陳自明의 婦人良方大全과 같은 婦人科專門書, 著者未詳의 產育寶慶方과 같은 產婦人科專門書 등이 著作되었다⁵⁾.

錢乙은 四十餘年間 小兒科에 專業하여 臨床經驗이 풍부하였으며, 小兒의 生理, 病理의 특징을 파악하여 臨證治療의 중요한 기준을 만들어 後世 小兒科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니 “錢乙 幼科, 冠絕一代”라고 칭하였다. 그는 “小兒의 生理,

病理는 成人과 달라 五臟六腑는 成而未全하고 全而未壯하여 易虛易實, 易寒易熱해지기 쉬운 것이 특징”이라 하였으며, 著書로 《傷寒論旨微》五卷, 《嬰孺論》百編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망실되었고, 《小兒藥證直訣》三卷(以下 直訣이라고 함.)이 後世에 전하나 이는 그의 제자 閻季忠이 錢乙生前의 論述 및 方劑를 수집하여 編集한 것으로 上卷은 脈證治法을, 中卷은 醫案을, 下卷은 方劑를 論하였다⁶⁾.

錢乙의 學術思想은 《內經》과 歷代諸家學說을 계승하고 자신의 풍부한 臨床經驗을 함하여 형성된 것이니 “該刮古今, 又多自得”이라 할 수 있고, 小兒의 生理, 病理 및 辨證施治와 制方用藥 등에 창안한 바가 많아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그 論述內容 또한 小兒科學의 범위를 초월하였다⁷⁾.

이처럼 錢乙은 小兒科學의 창시자라 불릴 수 있을 만큼 소아과영역에 기여한 바가 크나 아직까지 그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著者는 錢乙의 生涯와 著述, 學術思想과 그가 後世에 미친 影響 및 主要方劑, 醫論, 醫案 및 臨床應用에 대하여 살펴본 바 얻은 바가 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後世에 미친 影響

1. 學術思想의 流波

6) 賈維誠 : 三百種醫籍錄, 哈爾濱,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2, p. 306.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1985, p. 3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의사학교실 : 中醫歷代各家學說, 卷上, p. 70.

陳大舜 主編 : 中醫各家學說,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5, p. 190.

7) 北京中醫學院 :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 4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의사학교실 : 中醫歷代各家學說, 卷上, p. 70.

3)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 中國醫學史, 1997, pp. 299~300.

4) 甄志亞 :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 60.

5) 甄志亞 :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 64.

金完熙 外編 : 漢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p. 14.

儒門은宋代에서부터 分化되었고, 醫門은 金元時代부터 分化되었다. 北宋時代의 錢乙은 “新學啓興”의 影響下에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創製한 一代의 醫家였으며, 그는 주로 小兒科領域에 있어 韓醫學의 이론과 임상을 풍부하게 수습하였다. 당시의 小兒科領域에서는 “學派”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錢氏以後에 金元四大家의 學術思想의 영향을 받아 小兒科영역에서도 점차적으로 學術流派가 형성되었다. 만일 이러한 學術思想과 錢氏의 學術思想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錢氏의 學術思想은 偏寒論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⁸⁾.

小兒科領域中の 寒溫兩派는 南宋時代의 陳文中에 이르러 점차 明顯해졌는데 당시에는 痘麻 등과 같은 急性傳染病이 소아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陳氏는 錢氏가 抱龍丸, 百祥丸, 生犀散 등과 같은 寒涼한 약물로 痘疹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서 만약 寒涼한 약물을 잘못 투여하게 되면 冷氣가 內攻하여 脾胃를 손상하여 腹脹, 喘悶, 寒戰, 齧牙 등이 야기되어 치료가 어렵다고 하면서 桂, 附, 丁香 등과 같은 燥熱溫補劑로 痘疹을 치료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陰盛陽虛하여 뒤늦게 나타나는 痘疹에 溫補하는 溫補學派의 創始者라 할 수 있다. 後世에는 錢氏와 陳氏 二家를 得失이 많다고 評하였다⁹⁾.

대개 河間을 존중하는 자는 寒涼을 주로 하니 錢氏와 가깝다 할 수 있고, 東垣을 존중하는 자는 溫補를 주로 하니 陳氏와 가깝다 할 수 있으나 실제로 錢氏가 痘症을 治療하면서 寒涼下한 法을 사용한 것은 당시 세속에서 溫燥한 藥物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하는 것에 반대하였던 것이며, 陳氏가 痘症을 치료함에 燥熱之劑를 활용한 것은 《局

方》의 학문을 계승한 것이다. 宋金以來로 痘症을 治療하는데 寒溫二派가 형성되면서 小兒科學術의 각 방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⁰⁾.

錢氏는 小兒의 易虛易實, 易寒易熱과 같은 病理特徵을 강조하고, 五臟補瀉方을 創製하면서 “小兒易爲虛實, 脾虛不受寒溫, 服寒則生冷, 服溫則生熱”¹¹⁾이라 인식하였으니 小兒科領域內的 寒溫補瀉學派의 견해차이는 다른 학과처럼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折衷하거나 혹은 兩理論을 겸하기도 하였다¹²⁾.

2. 後世에 미친 影響

錢乙의 學術思想의 형성은 小兒科學의 發展史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 錢乙의 學術思想으로 韓醫學의 小兒科學은 隋唐時代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비로소 一門의 專科를 이루었으며, 後世發展의 기틀을 제공하여 韓醫學의 발전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1) 小兒科學에 대한 影響

錢氏는 小兒生理病理의 특징에 대한 견해와 小兒五臟辨證의 綱領에 대해 소아의 脾胃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그가 創案한 많은 小兒科方劑들은 小兒科學의 발전에 기틀을 이루었다. 錢氏와 더불어 同時代에 활동한 董汲, 閻季忠은 모두 錢氏學術을 따랐으며, 그 후 南宋時代 劉昉의 《幼幼新書》 및 著者未詳의 《小兒衛生總微論方》 등은 모두 《直訣》의 論證, 醫案, 方劑를 수록하였다. 明代 薛鎧는 《保嬰撮要》에서 錢氏의 五臟辨證說을 闡述하였고, 《直訣》을 注釋하였으며, 薛己는 驗案을 增補함으로써 錢氏의 學術을 闡述하였다. 魯伯嗣는 《嬰童百問》에서 錢氏의 學術을 문답식

8)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8.

9)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28~29.

10)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9.

11)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5.

12)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9.

으로 널리 채용하였고, 그 외에도 清代 周震의 《幼科指南》, 陳復正의 《幼幼集成》 등에서도 錢氏의 學問을 採錄하였다. 그렇지만 錢氏의 學術思想이 後代에 미친 影響은 明代 萬全, 清代 吳瑭, 最近의 惲鉅樹 등에게 가장 지대하였다 할 수 있다¹³⁾.

① 萬全의 五臟辨證說에 대한 영향

五臟辨證은 《直訣》의 주요내용이며, 全書의 總綱이라 할 수 있다. 錢氏는 小兒 五臟熱病은 外邪가 入裏하여 化熱하거나 혹은 他臟으로 移熱하여 轉變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實證이 많다고 하였다. 그 중 心과 肝은 實熱이 많고, 腎은 實熱이 없으며, 肺, 脾는 虛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소아의 五臟熱病은 모두 面部에 일정한 반영을 미친다 하였으며, 五臟寒證은 肺感外寒과 脾胃虛寒을 제외하고는 상세한 論述을 하지 않았다. 錢氏의 五臟補瀉方中 心, 肺, 脾 三臟은 補도 있고 瀉도 있으며, 肝은 瀉만 있되 補는 없으며, 腎은 補만 있되 瀉는 없다. 萬全은 이와 같은 錢氏의 學術見解를 근거로 하여 肝常有餘, 脾常不足, 心常有餘, 肺常不足, 腎常虛, 陰常不足, 陽常有餘와 같은 說을 體得하고서 錢氏가 언급한 의의 說을 闡發하였다¹⁴⁾.

萬全은 “대개 肝이 有餘한 것은 肝은 木에 속하고, 봄에 旺하며, 봄은 곧 少陽의 기운으로 萬物이 이를 받아 發生하는 것이다. 小兒初生을 芽兒라고도 일컫는데 이는 草木의 芽를 말하는 것이며, 初生에 氣를 받는데 그 氣가 바야흐로 盛한 것 또한 少陽의 氣가 長하여 그치지 않은 것이므로 肝이 有餘하다고 하는 것이다. 有餘한 것은 곧 자연의 陽氣가 有餘한 것이다. 脾가 항상 不足한 것은 脾

는 土氣를 주관하는데 小兒初生에 飲食하는 것은 乳로 水穀은 아직 入하지 못하니 脾가 아직 用事하지 못하여 그 氣가 아직은 弱한 까닭에 不足이라 하는 것이다. 心 또한 有餘하다는 것은 心은 火에 속하고, 여름에 旺하니 所謂 壯火之氣라 하는 것이다. 腎이 虛를 主한다는 것은 父母가 生하게 한 후 稟氣가 不足하다는 것을 일컫는 것이며, 肺 또한 不足하다는 것은 肺는 嬌臟으로 調理가 어렵고 쉽게 損傷된다는 것이다. 脾肺는 모두 太陰에 속하고, 天地間의 寒熱은 사람을 傷하는데 이를 感하면 肺가 먼저 이를 받게 되며, 水穀의 寒熱도 사람을 傷하는데 이를 感하면 脾가 먼저 이를 받게 되므로 脾肺는 모두 不足한 것이다.”라고 인식하였으니 後世에서 論하고 있는 小兒五臟의 “有餘”, “不足”의 說은 錢氏에게서부터 根源하여, 萬全에 의해 변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萬全은 錢氏의 五臟證治法則을 遵守하면서 脾胃病에 대하여 闡發하였으니 小兒는 乳食이 不調하므로 易飢易飽한다고 인식하여 “飽則傷胃, 飢則傷脾; 熱則傷胃, 寒則傷脾”, “故小兒之病, 胃病最多”, “若五臟有病, 或補或瀉, 慎勿犯其胃氣”라 하면서 구체적인 調治法으로 “脾熱者, 瀉黃散; 胃熱者, 人參白虎湯; 脾胃寒者, 理中湯丸; 脾胃虛者, 異功散, 調元湯, 人參白朮散, 養脾丸; 傷食者, 消積丸, 保和丸; 宿食成積者, 枳朮大黃丸; 濕勝者, 胃苓丸; 欲成疳者, 肥兒丸; 已成疳者, 集聖丸”을 제시하였다. 만약 小兒가 少食하는데도 易飽하는 것은 “胃之不受, 脾之不能消, 宜運脾之陽, 養胃之陰”이라 하여 錢氏異功散合小建中湯으로 主한다고 하였다. 萬全은 錢氏의 “吐瀉久則生風”, “飲食傷則成疳”, “諸疳皆脾胃病”의 觀點을 承襲하였으며, 錢氏의 小兒脾胃學說의 內容을 풍부히 하였다¹⁵⁾.

13)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9.

14)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29~30.

15)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② 吳瑭의 小兒體質學說 및 小兒科用藥論에 대한 영향

吳瑭은 清代의 저명한 溫病學家로 葉天士의 《臨證指南醫案》의 學術成果를 總結하였고, 자신의 臨床經驗을 합하여 《溫病條辨》을 著作하였으며, 三焦에 따른 理論을 세우면서 葉氏의 溫熱學說을 闡發하였다. 그 중 《解兒難》一卷은 실제로 錢氏의 學術思想을 闡發한 것이다. 《解兒難》에서는 小兒의 “稚陰稚陽”說을 제시하여 小兒 生長發育段階中的 體質特徵 및 病理方面의 轉化關係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그는 小兒의 臟腑가 嬌嫩하고, 形氣가 아직 充盛되지 않아 抗病能力이 弱한 生理的 特徵을 개괄하였으며, 외로는 六淫에 쉽게 침입받고, 내로는 쉽게 飲食에 損傷하므로 인하여 일단 病이 되면 內部的 正氣가 쉽게 손상되어 陽衰陰竭하게 되며, 治療時期를 놓치거나 병에 비해 약이 과하면 쉽게 病情이 惡化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吳瑭은 “其臟腑薄, 藩籬疏, 易于傳變; 肌膚嫩, 神氣怯, 易于感觸; 其用藥也, 稍呆則滯, 稍重則傷, 稍不對症, 莫知其鄉”이라 闡述하였으니 이는 실제로 錢氏의 “臟腑柔弱”, “肌骨嫩怯”, “易虛易實” 및 “易寒易熱”과 같은 小兒의 生理病理特徵을 闡發한 것이다¹⁶⁾.

錢氏는 慢驚風의 病機를 “無陽” 즉 “脾虛生風”으로 인식하였으니 이는 일종의 虛寒性 脾胃病으로 볼 수 있으며, 치료는 마땅히 “溫補”한다고 하였다. 吳瑭은 이를 “病久而瘥者, 非傷脾陽, 肝木來乘: 卽傷胃汁肝陰, 肝風鸛張, 一虛寒, 一虛熱, 爲難治也. …… 如夏月小兒暑濕瀉暴注, 一晝夜百數十行, 下多亡陰, 肝乘致瘥”이라 인식하고 連梅湯으로 滋養津液하고, 大, 小定風珠와 三甲復脈湯으로 填陰

柔肝하여 胃津液損과 肝腎陰竭로 인하여 心神憤亂, 虛風暗動, 搐搦瘳瘳의 瘳瘳을 治療하였으니 錢氏를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慢驚風을 滋補法으로 治療하는 것에 대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 외에도 吳瑭은 小兒體質에서부터 출발하여 錢氏地黃丸으로부터 小兒科用藥說을 깨달아 “小兒, 春令也, 東方也, 木德也, 其味酸甘”이라 하여 小兒의 味를 調節하는데는 甘味는 當되 酸味는 적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錢氏地黃丸은 곧 小兒를 補益하는 標準方劑로 吳瑭은 苦寒劑를 함부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存陰退熱하는 法을 제일의 妙法으로 여겨 “而存陰退熱, 莫過於錢氏六味之酸過化陰.”이라 하였으니 吳瑭의 이러한 說法은 실제로 地黃丸의 方論을 말한 것이다.

③ 惲樹珏의 驚風說에 대한 영향

惲氏는 《直訣》에 대하여 《顛顛經》이 失傳된 후 옛 뜻을 거의 간직하고 있으니 마땅히 《直訣》은 큰 가치가 있다고 칭송하였다.

錢氏가 早晨, 日午, 日晚, 夜間에 發하는 瘳瘳을 肝, 心, 肺, 腎 四臟이 主하는 것으로 나눈 것에 대해 惲樹珏은 “用意頗深遠”이라 인식하고, “所謂肝病者, 非肝病; 心病者, 非心病, 乃臟氣病也. 臟氣所主, 爲生, 長, 化, 收, 藏. 肝病者逆生氣, 心病者逆生氣, 肺病者逆收氣, 腎病者逆藏氣也. 言寅卯, 巳午, 申酉, 亥子者, 一日之生長化收藏也. 內經之法, 分三級: 生長壯老已, 統一生言之; 生長化收藏, 統一年言之; 鷄鳴, 平旦, 日中, 合夜, 統一日言之. 今以小兒之病, 分隸一日之二分二至, 與內經之法相合.”이라 하여 錢氏가 人間과 自然은 하나의 整體이며, 時間과 症候가 內在關係에 있다는 時空觀을 闡述하였다.

社, 1989, pp. 30~31.

16)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31.

17)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31.

또한 錢氏가 驚風發搐에 地黃丸, 瀉青丸 및 益黃散으로 治療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의 方義 및 臨證活用法을 分別하여 分析하면서 “以上五方, 最爲平穩適當之劑, 苟能辨證真確, 施之無不立效, 而所難者, 即在辨證正確.”이라고 인식하였다¹⁸⁾.

2) 易水學派에 대한 影響

錢氏의 五臟虛實證治는 張元素의 臟腑病機辨證에 큰 影響을 미쳤으니 《醫學啓源主治心法》은 《直訣》의 小兒五臟辨證 理論을 전부 수록하고 있다. 張元素는 “不用古方, 自爲家法”이라고 하면서도 유독 錢氏의 臨證治法을 많이 활용하여 地黃丸, 瀉青丸, 安神丸, 瀉心湯, 導赤散, 益黃散, 瀉黃散, 瀉白散, 阿膠散 등을 五臟補瀉의 標準方劑로 제시하였다.

小兒의 脾胃를 調治하는 것을 중시하는 學術觀點은 張元素를 지나 李東垣에게 影響하였으니 錢氏의 “脾胃虛衰, 四肢不舉, 諸邪遂生”¹⁹⁾의 理論과 東垣의 “脾胃虛衰, 百病由生”의 說은 근거가 같음을 알 수 있다. 錢氏는 小兒의 食積發熱의 病機를 “脾胃虛而發熱”²⁰⁾이라 인식하여 小兒科의 補氣升提, 甘溫除熱의 方劑로 활용되는 白朮散을 創制하였으며, 東垣은 黃芪湯을 創制하여 驚症을 治療하면서 “嘔吐, 腹痛, 瀉痢青白, 益黃散聖藥也.”²¹⁾라고 하였다. 《脾胃論腸癖下血論》에서는 “胃虛不能食, 易大渴不止者, 不可用淡滲之藥, 止之, 乃胃中元氣少故也, 七味白朮散補之.”²²⁾라 하였으며, 《脾胃論》에서는 腹痛, 中氣虛弱者の 治療에는 “仲景小建中湯加黃芪, 或異功散加芍藥.”을, 渴瀉傷

津에는 “白朮散倍葛根”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脾胃論》에서는 小兒, 男, 婦女의 三焦積熱로 인한 目赤腫痛, 口舌生瘡, 煩燥, 便秘와 五臟俱熱로 인한 痛, 癰, 瘡瘍, 痔疾, 肛裂諸病을 治療하는데는 《直訣》의 三黃丸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李東垣은 升陽散火法을善用하여 組方中 升麻, 柴胡, 羌活, 葛根 등과 같은 藥物을 常用하였으며, 升陽散火湯, 補中益氣湯, 升陽除濕湯 및 清胃散 등은 모두 瀉黃散, 瀉青丸, 敗毒散, 白朮散과 같은 方中の “風藥散鬱火”의 影響을 받아 創制되었다 할 수 있으니 이로 미루어 李東垣의 脾胃學說 또한 錢氏의 影響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錢氏가 小兒의 病因特徵에서 출발하여 調益脾胃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李東垣이 成人의 勞倦飢飽에 착안하여 脾胃之氣를 先發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들이 각자 그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들간의 相互關係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養陰學派에 대한 影響

錢氏는 地黃丸을 創方하여 小兒의 腎陰을 補益하는 “壯水之主, 以鎮陽光”의 專劑로 삼았는데 本方을 劉完素는 癆熱骨蒸 등과 같은 陰虛證을 治療하는데 활용하였고, 李東垣은 本方을 기초로 益陰腎氣丸²³⁾(澤瀉, 茯苓, 生地黃, 牡丹皮, 山茱萸, 當歸梢, 五味子, 乾山藥, 柴胡, 熟地黃)을 創方하였으며, 朱震亨은 그 의의를 취하여 大補陰丸(黃柏, 知母, 熟地黃, 龜板, 猪脊髓)을 創方하였고, 明代 薛己는 本方의 활용을 계승하여 補眞陰의 聖藥으로 삼았으며, 清代 趙養葵는 本方을 水泛爲痰의 聖藥이요, 血虛發熱의 神劑라고 칭찬하였다. 本方은 최근에도 常用되고 있으니 《醫宗已任編》에서는 本方에 五味子를 加하여 都氣丸이라 命名하

18)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32.

19)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5.

20)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24.

21) 李東垣 外 : 東垣十種醫書(蘭室秘藏),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241.

22) 李東垣 外 : 東垣十種醫書(蘭室秘藏),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99.

23) 李東垣 外 : 東垣十種醫書(蘭室秘藏),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175.

고 陰虛氣喘을 治療하였으며, 《醫級》에서는 本方에 枸杞子, 菊花를 加하여 杞菊地黃丸이라 命名하고 陰虛眼花歧視를, 麥門冬, 五味子를 加하여 八仙長壽丸이라 命名하고 陰虛喘咳帶血을 治療하였고, 《醫宗金鑑》에서는 知母, 黃柏을 加하여 知柏地黃丸이라 命名하고 陰虛火旺, 骨蒸潮熱을 治療하였으며, 《景岳全書》에서는 本方에서 牡丹皮, 茯苓, 澤瀉를 減하고 枸杞子, 牛膝, 兔絲子, 龜板, 鹿膠를 加하여 腎水不足으로 營衛를 滋養하지 못하여 점차 衰弱해져 가는 것을 治療하였다. 이로 보아 本方은 後世의 많은 醫家들이 중시하여 補腎의 一大法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으며, 滋陰學派의 先驅者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溫病學派에 대한 影響

驚風發搐은 小兒科에서 흔히 나타나는 症候로 小兒는 氣血이 未實하고 神氣가 未充하며 肝은 항상 有餘하고 眞陰은 不足하여 柔不濟剛한데 火熱 驚恐과 같은 外因과 痰食積滯과 같은 內因으로 인하여 쉽게 肝風內動하고 心火上炎하면 風熱이 相搏하여 쉽게 神昏發搐하게 된다. 小兒의 外感熱病, 痘麻臍風, 疳瘦痰食, 驚忱癲癇 등에서는 모두 驚風抽搐이 나타나게 된다. 錢氏는 陽明腑實을 攻下하는 法으로 泄熱開竅한 외에도 清熱平肝, 芳化涼開의 法을 活用하여 涼驚丸, 抱龍丸을 小兒科의 熱病驚搐神昏을 治療하는 有效한 方劑로 제시하였다. 《名醫雜著》의 牛黃抱龍丸(本方 加牛黃), 《活幼心書》의 琥珀抱龍丸(本方 加琥珀, 人蔘, 甘草, 枳殼, 枳實, 茯苓, 山藥, 金箔, 檀香 去麝香)은 모두 本方에 加減하여 組成한 것이다. 《直訣》附編에 收集된 《閻氏小兒方論》中の 至寶丹, 紫雪丹을 明清時代 溫病學家들이 採納하여 芳香開竅, 解毒醒神, 清熱涼血法의 有效한 方劑로 삼았다.

이 외에도 《直訣》에 언급된 “熱證疏利或解化

後, 無虛證, 勿溫補, 熱必隨生”²⁴⁾의 觀點은 나중에 溫病學說에서 다시 啓發되었으니 葉桂가 “清涼到十分之六七, 往往熱減身寒者, 不可就云虛寒而投補劑, 恐爐烟雖息, 灰中有火也”라고 한 것은 錢氏가 論한 바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方劑學에 대한 影響

錢氏의 方은 理法이 嚴正하고 配伍가 精當하여 張元素, 李東垣이 이를 계승하여 인용한 외에도 劉完素의 《宣明方論》,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 嚴用和의 《濟生方》 등과 같은 方書에 모두 影響을 주었으며, 그는 方劑史上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요약하게 하는 새로운 면을 창설하였다. 최근에 유행하는 허다한 方劑專書에는 모두 錢氏의 方이 들어 있으며, 또한 臨床醫들이 活用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薛己가 “錢乙之法可以日用, 錢氏之方可以時省.”이라 한 것을 보면 錢氏의 學術思想이 後世에 미친 影響은 小兒科學의 範疇를 초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歷史的 條件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錢氏의 學術思想中에는 어느 정도의 부족한 곳이 있으니 예를 들어 五臟辨證中 五臟에 대해서는 상세하였어도 六腑에 대해서는 간략히 하였고, 五臟之間, 臟腑와 氣候時令間의 相互關係를 論述할 때 한 지방에서 보이는 것을 비교적 한결같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고정하였으며, 驚疳을 治療하는 많은 方劑中 金石重墮, 毒性猛烈한 藥물을 채용하였으니 이는 현대에는 취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小兒科學에서는 上述한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많은 개선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Ⅲ. 主要方劑

24)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32.

1. 瀉清圓

肝熱搖擲, 脈洪實을 治療한다.

當歸, 龍腦, 川芎, 山梔子仁, 川大黃, 羌活, 防風

위 藥物을 等分 粉末로 하여 煉蜜로 鷄頭大의 丸을 만들어 매번 半丸에서 一丸을 竹葉煎湯에 砂糖을 넣어 服用한다.

(方解) 龍腦는 곧 冰片으로 性味는 苦寒하며, 善散火鬱, 辛香走竅하여 능히 諸竅를 통하게 한다. 內服하면 能히 開竅回蘇하여 麝香과 유사하나 그 效能은 약간 떨어지며, 能히 瀉火醒神한다. 山梔子와 大黃은 相合하고 肝經에 入하여 瀉火下行하며, 羌活·防風은 搜風散火하고, 當歸·川芎은 養血潤肝하여 熄風한다. 肝經의 實火로 抽搐할 때 本方을 活用한다. 또한 肝經實熱의 證이 보이는데 神昏抽搐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龍腦를 龍膽草로 代用할 수 있다.

2. 抱龍丸

傷風瘟疫, 身熱昏睡, 氣粗風熱, 痰塞壅嗽, 驚風潮搐 및 盅毒中暑를 治療한다. 沐浴後에 服用하며, 壯實한 小兒는 적당한 때에 服用한다.

天竺黃 1兩, 雄黃 1錢, 辰砂, 麝香 各 0.5兩, 分別研. 天南星 4兩(陰曆 12월에 牛膽에 담그어 百日間 陰乾한다. 없다면 生南星 皮臍를 去하고 갈아서 炒하여 乾用한다.)

위 藥物을 細末하여 甘草달인 물로 梔子大의 丸을 만들어 溫水로 服用한다. 百日까지의 小兒에게는 每丸을 3, 4回로 나누어 服用하고, 五歲정도면 1, 2丸을, 大人은 3, 5丸을 服用한다. 또한 室女의 白帶下를 治療하며, 伏暑에는 소금을 조금 넣는다. 1, 2丸을 씹어 물로 服用한다. 陰曆 12월에 雪水로 甘草달인 물이 더욱 좋다. 一法에는 물이나 新水에 天南星을 3日間 浸하여 軟해지면 3, 5回 끓인 뒤 去皮하여 다시 白色의 軟部를 取하여

얇게 잘라 黃色으로 焙乾炒한 뒤 粉末 8兩을 취한다. 甘草 2兩半을 분쇄하여 물 2대접을 넣어 하루 밤 浸하고 慢火로 반대접이 되게 끓인 뒤 찌꺼기를 버리고 天南星粉末을 서서히 뿌려 甘草물이 다 되면 나머지 藥物을 넣는다.

(方解) 本方의 天竺黃·膽星의 清熱化痰, 雄黃의 祛痰解毒으로 能히 驚癇을 治療하며, 麝香·辰砂는 芳香開竅하여 安心神하므로 小兒의 痰熱內壅하여 發한 急驚實證에 마땅하다. 後世의 牛黃抱龍丸·琥珀抱龍丸 등은 모두 本方에 加減하여 만든 것이다.

3. 導赤散

小兒心熱을 治한다. 視其睡, 口中氣溫, 或合面睡 및 上竅咬牙는 모두 心熱이다. 心氣가 熱하면 心胸 또한 熱하며, 말하고자 하나 不能하여 차게 하고자 하므로 合面睡한다.

生地黃, 生甘草, 木通 各等分

위 藥물을 분말로 하여 매번 3錢씩 물 1잔에 竹葉을 같이 넣고 끓여 5分정도 되게 하여 食後에 溫服한다. 一法에는 甘草를 사용하지 않고 黃芩을 사용한다.

(方解) 本方은 錢氏가 心熱을 治療하는 代表方이다. 方中の 生地黃은 涼心血하고, 竹葉은 清心氣하며, 木通은 降心火, 利小便하고, 甘草는 解毒和中하여 모두 心과 小腸의 火를 小便으로 出하게 한다. 故로 대개 心經積熱하여 面赤煩躁, 咬牙口渴, 心胸灼熱, 意欲就冷하거나 或은 心熱이 小腸으로 전이하여 口糜舌瘡, 小便赤澀, 熱淋莖痛하는 등의 證에 모두 응용할 수 있다.

4. 安神丸

面黃頰赤, 身壯熱을 治療한다. 補心하므로 心虛肝熱의 神思恍惚을 治療한다.

馬牙硝 5錢, 白茯苓 5錢, 麥門冬 5錢, 乾山藥 5錢, 龍腦 1字, 寒水石 5錢, 朱砂 1兩研, 甘草 5錢

위 藥物을 분말로 하여 煉蜜로 鷄頭大의 丸을 만들어 매번 半丸을 砂糖으로 無時服用한다.

(方解) 本方は 心經의 壯熱로 面黃頰赤, 神思恍惚하는 症을 治療한다. 朱砂는 心에 入하여 鎮驚하며, 寒水石은 腎에 入하여 降熱하고, 馬牙硝는 瀉胃熱하며, 茯苓·麥門冬은 潤肺瀉熱하고, 山藥·甘草는 滋脾清熱하며, 龍腦는 通竅散邪, 祛痰熄風한다. 이들은 모두 清熱泄火, 重墮鎮佐한 藥劑이므로 安神丸이라 名한다. 方中の 牙硝, 龍腦, 寒水石 등이 비록 寒涼清火한 藥物로 흡사 清實火하는 듯하나 小兒의 心火는 쉽게 亢하니 安神丸은 能히 解心熱, 安心神하여 心으로 하여금 便安케 하는 것이다.

5. 瀉黃散(又名瀉脾散)

脾熱弄舌을 治療한다.

藿香葉 7錢, 山梔子仁 1錢, 石膏 5錢, 甘草 3兩, 防風 4兩

위 藥物을 분쇄하여 꿀과 술로 고운 가루가 되어 종이 나도록 微炒한다. 매번 1錢 내지 2錢을 물 1잔에 넣고 달여 5分정도 되게 하여 清汁을 無時溫服한다.

(方解) 《醫方集解》에서는 “이는 足太陰陽明藥이다. 山梔子는 心肺의 火를 清케 하는데 屈曲下行케 하여 小便으로 出하며, 藿香은 脾肺의 氣를 理케하고 上焦의 壅熱을 去하며, 辟惡調中한다. 石膏는 大寒하여 瀉熱하며 兼하여 能히 解肌하고, 甘草는 甘平守中하며 또한 能히 瀉火하며, 防風을 重用하는 것은 升陽을 취하여 能히 脾中伏火를 發하며 또한 能히 土中の 木을 瀉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6. 益黃散(又名補脾散)

脾胃虛弱 및 脾疳腹大身瘦를 治療한다.

陳皮 1兩, 丁香, 訶子, 青皮, 甘草 各5錢

위 藥物을 분말로 하여 3歲兒는 물 반잔에 1錢

半을 넣고 3分정도 되게 다려 食前에 服用한다.

(方解) 《張氏醫通·嬰兒門》에서는 “益黃散은 中州를 補益하는 藥物을 활용하지 않고 陳皮, 青皮 二橘로 辟滯陳氣하니 그 뜻이 참으로 미묘하다. 嬰兒의 欠瀉가 오래도록 낫지 않은 것은 內에 乳食이 積滯한 것이니 二皮로 오직 肝脾의 宿蔭을 다스리며, 訶子로 兜澁下脫하고, 丁香으로 溫理中州하며, 甘草로 和脾氣하니 瀉中에 補하는 法이 심오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7. 白朮散

脾胃久虛, 嘔吐泄瀉, 頻作不止, 精液苦竭, 煩渴躁, 但欲飲水, 乳食不進, 羸瘦困劣, 因而失治, 變成驚癇을 治療하며, 陰陽虛實을 막론하고 마땅히 복용한다.

人蔘 2.5錢, 白茯苓 5錢, 白朮 5錢, 炒 藿香葉 5錢, 木香 2錢, 甘草 1錢, 葛根 5錢 渴者 加至 1兩

위 藥物을 씹어 매번 3錢씩 물에 달여 복용하는데 熱甚하여 渴症을 發하면 木香을 去한다.

(方解) 小兒의 體質은 嬌嫩하고 氣血은 未充한데 氣血津液 또한 生機의 根本이 되니 반드시 소중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學術思想의 기초는 胃有虛熱, 津液虧損, 中氣下陷 등과 같은 證에도 적용되니 錢氏는 저명한 白朮散을 창립하였다. 本方은 健脾養胃하며 또한 能히 升清하니 運化作用의 失司로 다시 津液이 耗竭되고 虛熱內熾하여 口渴不止한 자에 활용한다. 方中の 四君子는 補中하고, 木香·藿香은 芳香으로 悅脾健胃하며, 葛根은 升清止瀉하고 能히 解渴하니 실제 임상에서는 渴瀉의 聖藥이요, 疳症初起의 妙劑이니 多服하면 더욱 좋다. 李東垣은 “如不能食而渴, 潔古先師倍加葛根, 如能食而渴, 白虎湯加人蔘服之.”²⁵⁾라 하였다.

8. 異功散

25) 李東垣 外 : 東垣十種醫書(脾胃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125.

溫中和氣하여 吐瀉不思乳食을 治療한다. 대개 小兒의 虛冷病에 먼저 여러 차례 服用하여 그 氣를 돕게 한다.

人蔘切去頂, 茯苓去皮, 白朮, 陳皮剉, 甘草 各等分

위 藥物을 細末하여 매번 2錢을 물 1잔에 生薑 5, 大棗 2개를 넣고 7分정도 되게 다려 食前에 溫服하는데 量의 多少는 관계없다.

(方解) 異功散은 四君子湯에 陳皮를 加한 것이다. 四君子로 脾氣를 補하고, 陳皮를 加하여 行氣하니 補하나 滯하지 않게 하고, 溫하나 燥하지 않게 하며, 生薑과 大棗를 함께 다리니 能히 溫調脾胃하는 것으로 虛冷吐瀉, 不思飲食 등의 證을 治療한다. “대개 小兒의 虛冷病에 먼저 여러 차례 服用하여 그 氣를 돕게 한다.”고 하였으니 本方은 실제로 錢氏의 溫運中宮, 補益脾氣하는 要劑이었음을 알 수 있다.

9. 藿香散

脾胃虛有熱하여 面赤嘔吐涎嗽 및 過度한 자를 治療한다.

麥門冬去心焙, 半夏麴, 甘草 各 半兩, 藿香葉 1兩

위 藥物을 분말로 하여 매번 5分내지 1錢을 물 1잔 반에 다려 7分정도 되게 하여 食前에 溫服한다. 聚珍本에는 石膏 半兩이 있다.

(方解) 本方은 《金匱要略》의 麥門冬湯(麥門冬, 半夏, 人蔘, 甘草, 粳米, 大棗)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胃虛有熱로 인한 嘔吐를 治療한다. 甘草, 麥門冬으로 養胃陰하고, 石膏로 清胃熱하며, 半夏로 降胃逆하고, 藿香을 重用하여 芳香化濁하여 中州의 氣滯를 다스린다.

10. 瀉白散(又名瀉肺散)

小兒의 肺氣가 盛하여 발한 氣急喘嗽을 治療한다.

地骨皮, 桑白皮 各 1兩, 甘草 1錢

위 藥物을 분말로 하여 粳米 한 주먹을 넣고 작은 잔으로 물 2잔을 넣고 7分정도 되게 다려 食前에 복용한다.

(方解) 瀉白散은 瀉肺清熱之劑이다. 方中の 桑白皮는 瀉肺化痰, 降逆平喘하고, 地骨皮는 退伏熱하며, 甘草·粳米는 益胃和中한다. 本方는 肺에 伏熱이 있어 발하는 喘嗽가 심할 때 합당하다. 따라서 李時珍은 이를 瀉肺하는 諸處方의 準繩이라 칭하였다. 만약 外感風寒으로 인하여 喘嗽하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사용하게 되면 清涼抑降으로 인하여 더욱 壅塞하여져 外感의 邪氣가 透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11. 阿膠散(又名補肺散)

小兒의 肺虛, 氣粗喘促을 治療한다.

阿膠 1.5兩, 黍粘子, 甘草 各 2.5錢, 馬兜鈴焙 5錢, 杏仁炒 7分, 粳米 1兩

위 藥物을 분말로 하여 매번 1, 2錢을 물 1잔에 6分정도 되게 다려 食後에 溫服한다.

(方解) 本方은 阿膠로 養陰補肺하고, 馬兜鈴·黍粘子(즉 牛蒡子)로 開宣肺氣하여 壅塞하지 않게 하며, 杏仁으로 降肺하여 止咳하고, 甘草·粳米로 補脾土·養肺金한다. 肺陰을 補하면서 아울러 脾氣를 補하고, 滋補하면서 아울러 宣肅한다. 대개 肺損久嗽하며 陰虛氣鬱한 자는 모두 응용할 수 있다.

12. 地黃丸

腎怯失音, 顙開不合, 神不足, 目中白睛多, 面色白晄白 등을 治療한다.

熟地黃 8錢, 山萸肉, 乾山藥 各 4錢, 澤瀉, 牡丹皮, 白茯苓 各 3錢

위 藥物을 분말로 하여 煉蜜로 梧子大의 丸을 만들어 空心에 溫水로 3丸씩 복용한다.

(方解) 本方은 《金匱要略》의 腎氣丸에서 肉

桂와 附子를 去하고 만든 것이다. 錢氏는 小兒의 腎陰은 未充하니 益火하여 煩게하면 안된다고 인식하여 肉桂와 附子를 去하고서 溫腎하였으니 오직 腎陰虛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方中の 熟地黃은 滋補腎陰, 填養精血하고, 萸肉은 補腎滋肝하며, 山藥은 健脾補肺하고, 茯苓·澤瀉는 滲利濕熱하며, 牧丹皮는 清瀉伏火하니 補하면서 瀉하고, 補하되 滯하지 않게 하여 小兒의 先天不足, 腎陰失充으로 行遲齒遲, 解顛失音, 腎疳, 肝疳, 陰虛發熱 등과 같은 諸證에 대하여 本方을 사용하여 근원을 滋한다. 《醫方論》에 이르길 “本方은 肝腎不足만을 치료할 뿐 아니라 실제로 三陰을 아울러 치료하는 方劑이다. 熟地黃으로 腎水를 賦補한 즉 澤瀉로 腎濁을 宣泄하여 다스리며, 萸肉으로 肝經을 溫滋한 즉 牧丹皮로 肝火를 清瀉하여 佐하고, 山藥으로 收攝脾經한 즉 茯苓으로 脾濕을 淡滲하여 和한다. 藥物은 六味지만 大開大合하고 三陰을 治療하니 補하는 處方의 정석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13. 塌氣丸

虛脹을 治療한다. 腹大者는 夢卜子를 加하며 塌丸子라 한다.

胡椒 1兩, 蝎尾 5錢

위 약물을 細末하여 밀가루로 粟米大의 丸을 만들어 매번 5, 7丸에서 1, 20丸정도를 陳子飲으로 무시 복용한다. 一方에는 木香 1錢이 있다.

(方解) 本方은 胡椒를 위주로 溫運脾胃, 散寒快膈하며, 蝎尾로 疏肝祛風케 하여 肝脾를 冷케 하여 橫逆하여 脹이 發하지 않게 한다. 腹이 이미 脹滿하면 行氣하는 藥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 당연히 木香을 사용한다. 挾食積者는 夢卜子를 활용하여 야 하며, 陳倉米로 飲下하는 것은 中氣를 扶助하는 작용을 취하고자 함이다. 張驥는 “이는 虛脹을 治療하는 方劑이다. 虛脹者는 中部에 반드시 有寒하니 胡椒의 辛熱純陽으로 暖胃快膈하여 腹脹을

消하면서 止痛하며, 虛寒者는 肝木이 반드시 乘하니 蝎尾의 味甘色靑으로 諸風을 治하면서 疏土하니 이는 土木을 相資하여 賊을 相克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糊丸하여 調中建運하니 虛脹이 낫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14. 百部丸

肺寒壅嗽, 微有痰을 治療한다.

百部炒 3兩, 麻黃, 杏仁 40介 3, 5回 끓인다.

위 藥物을 분말로 하여 煉蜜로 芡實大의 丸을 만들어 뜨거운 물로 복용한다. 松子仁肉 50粒, 糖丸 3을 포함하면 더욱 妙하다.

(方解) 이는 肺感外寒으로 야기된 痰飲咳嗽를 治療하는 方이다. 麻黃, 杏仁은 宣肺肺氣, 疏散外邪하며, 百部는 溫潤, 降逆定喘한다. 松子仁을 加味하고 糖을 사용하여 丸藥을 만들어 복용하는 것은 더욱 小兒에게 적합하다.

15. 蟬花散

驚風夜啼, 咬牙咳嗽 및 咽喉壅痛을 治療한다.

蟬花, 白僵蠶, 甘草 各 1分, 延胡索 0.5分

위 藥物을 분말로 하여 1歲兒는 1字를, 4, 5歲兒는 半錢을 蟬殼湯으로 식후에 복용한다.

(方解) 蟬蛻殼 頭上의 一角이 花冠과 같아 蟬花라 하며 功效는 蟬蛻와 같다. 本方의 蟬花, 僵蠶은 祛風定驚하며, 延胡, 甘草는 止咳消壅하므로 能히 小兒의 痰熱로 인하여 야기된 驚風夜啼, 咬牙咳嗽 및 咽喉壅痛 등의 證을 治療한다.

16. 消積丸

大便酸臭를 治療한다.

丁香 9介, 縮砂仁 20介, 烏梅肉 3介, 巴豆 2介

위 藥物을 細末하여 밀가루로 黍米大의 丸을 만든다. 3歲 이상은 3, 5丸을 3歲 이하는 2, 3丸을 溫水로 無時 복용한다.

(方解) 中宮에 積滯하여 鬱하면 熱을 生하므로 大便酸臭한다. 丁香, 砂仁으로 理氣醒胃, 健運中

宮하고, 巴豆로 攻堅蕩積, 推陳致新하며, 烏梅로 生津止渴하여 津液을 回復시킨다. 藥物은 四味이나 配伍가 우수하니 확실히 좋은 처방이다.

17. 五福化毒丹

瘡疹의 餘毒이 口齒로 上攻하여 躁煩咽乾, 口舌生瘡하고, 蘊熱積毒으로 驚惕狂躁하는 것을 治療한다.

生, 熟地黃 各 5兩, 玄參, 天門冬, 麥門冬 各 3兩, 甘草, 舌甘硝 2兩, 青黛 1.5兩

위 八味를 細末한 뒤 硝, 黛를 갈아넣고, 煉蜜로 鷄頭大의 丸을 만들어 매번 半丸을 식후에 물로 복용한다.

(方解) 本方은 瘡疹後에 陰虛津傷하고 毒火上乘한 證을 治療하므로 二地, 玄參, 二冬으로 滋陰平熱하며, 舌甘硝, 青黛로 未盡한 實熱을 除하고, 炙甘草로 調和한다. 本方이 蘊熱積毒을 治療한다고 하나 熱이 盛하지 않고 液耗한 자에 적당하다. 만약 毒焰尙熾하고 痰涎未化한 자에게는 가볍게 두어해서는 안된다.

18. 敗毒散

傷風瀰疫風濕으로 頭目昏暗, 四肢作痛, 憎寒壯熱, 項強睛疼 或 惡寒咳嗽, 鼻塞聲重하는 것을 治療한다.

柴胡, 前胡, 川芎, 枳殼, 羌活, 獨活, 茯苓, 桔梗, 人參 各 1兩, 甘草 0.5兩

위 藥物을 분말로 하여 매번 2錢씩 生薑, 薄荷를 넣고 달이며, 地骨皮, 天麻를 加味하기도 한다. 驚熱을 治療할 때는 蟬蛻, 防風 및 芍藥, 乾葛, 黃芩을 加味하고, 無汗에는 麻黃을 加味한다.

(方解) 敗毒散은 人參敗毒散이라고도 하는데 扶正祛邪하는 方劑로 그 效能은 益氣發汗, 散風祛濕하며, 正氣不足한데 外邪를 感受하였거나 時疫, 瘧, 痢 등과 같은 證을 主治한다. 方中の 羌活, 獨活은 散風祛濕하고 川芎과 合하면 能히 頭痛身痛

을 治療하며, 柴胡, 前胡, 薄荷는 疏表解熱하고 枳殼, 桔梗, 茯苓과 配하여 化痰理氣하며, 甘草는 調中하고, 生薑은 散寒한다. 더욱 오묘한 것은 대부분의 表散藥中에 人參一味를 사용하여 扶正氣하였으니 이는 小兒의 正氣가 쉽게 虛한 까닭이다. 正氣가 일정하게 죽하면 邪氣는 땀을 쫓아 배출되지 病이 완전히 治愈될 수 있다. 無汗에는 麻黃을 加味하며, 小兒의 驚熱에는 蟬蛻, 防風을 가미하여 疏風解熱하고, 芍藥, 乾葛, 黃芩을 가미하여 柔筋解肌清熱한다. 咳嗽者는 舌甘葶藶을 가미하여 瀉肺寧嗽한다. 本方은 能히 正氣를 培하고 邪毒을 敗하므로 인하여 敗毒散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IV. 醫 論

1. 五臟所主²⁶⁾

心은 驚을 主한다. 實하면 叫哭發熱, 飲水而搖하고, 虛하면 臥而悸動不安한다.

肝은 風을 主한다. 實하면 目直, 大叫, 呵欠, 項急, 頓悶하고, 虛하면 咬牙, 多欠氣한다. 熱하면 外生氣하고, 濕하면 內生氣한다.

脾는 困을 主한다. 實하면 困睡, 身熱飲水하고, 虛하면 吐瀉生風한다.

肺는 喘을 主한다. 實하면 悶亂喘促하고 飲水者도 있고 不飲水者도 있으며, 虛하면 哽氣, 長出氣한다.

腎은 虛를 主하며 實하지 않는다. 오직 瘡疹에서만 腎實하면 黑陷으로 변한다.

다시 虛實證을 辨하면 가령 肺病에 또한 肝證이 보이니 咬牙多呵欠者는 易治이니 肝虛하여 肺를 勝하지 못한 까닭이며, 만약 目直, 大叫哭, 項急, 頓悶하면 難治이니 대개 肺가 久病하면 虛冷한데 肝이 強直하여 도리어 肺를 勝하기 때문이

26)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 2~3.

다. 病의 新久虛實을 살피 虛하면 그 母를 補하고, 實하면 그 子를 瀉한다.

五臟病

肝病은 哭叫, 目直, 呵欠, 頓悶, 項急한다.

心病은 多叫哭, 驚悸, 手足動搖, 發熱飲水한다.

脾病은 困睡, 泄瀉, 不思飲食한다.

肺病은 悶亂哽氣, 長出氣, 氣短喘息한다.

腎病은 無精光, 畏明, 體骨重한다.

考察 : 上述한 "五臟所主"와 "五臟病"은 《直訣》의 總綱이며, 錢氏의 小兒科 學術特徵을 반영하였다.

2. 小兒脈法²⁷⁾

脈亂하면 不治이다. 氣가 不和하면 弦急하고, 傷食하면 沈緩하며, 虛驚하면 促急하고, 風은 浮하며, 冷은 沈細하다.

考察 : 本 條文에서는 小兒의 常見脈象과 所主症候를 서술하였다. 脈이 亂한 것은 正氣가 이미 散하고 胃氣가 이미 敗하므로 脈이 일정한 狀이 없는 것이며, 豫候도 不良하다. 氣機不和하고 肝強脾弱하여 鬱結하여 舒暢되지 못하므로 脈이 弦하면서 急한 것이며, 傷食하면 中部에 氣滯하므로 脈이 沈하면서 緩한 것이다. 驚하면 氣亂한데 또한 體虛를 겸하면 脈이 急促하여 緩和하지 못하고, 風은 陽邪에 속하고 性質은 疏泄하며 外로 向하고 上을 主하므로 脈이 浮한 것이며, 寒은 陰에 속하고 沈降收斂을 主하므로 脈이 沈細한 것이다.

3. 腹中有癖²⁸⁾

不食하지만 단 飲乳하는 것으로 마땅히 白餅子를 조금씩 사용하여 下한다.

小兒의 癖症은 乳食이 不消하여 腹中에 伏在한 것으로 乍凉乍熱하며 飲水하거나 혹은 喘嗽하여 潮熱과 서로 비슷하다.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 반

드시 疳症을 이룬다. 癖症이 발하면 小兒로 하여금 不食케하고 脾胃가 虛하게 되어 發熱하므로 飲水가 過多하여 腸胃를 蕩滌하고 津液이 亡失되어 脾胃가 水穀을 傳化하지 못하고 脈은 沈細하며 더욱 不食하게 된다. 脾胃가 虛衰하면 四肢不舉하고 諸邪氣가 生하게 되어 적지 않게 마르면 疳症을 이룬다.

考察 : 本 條文은 小兒癖症의 病因, 病機 및 辨證을 서술하고 있다. 小兒의 脾는 항상 不足한데 飲食不節하면 乳食이 不消하여 中部에 積滯하여 癖症을 이룬다. 症狀은 乍凉乍熱하여 嘔吐 潮熱과 유사하며 飲水多, 不能食하고 그 脈은 沈細하며 혹은 喘嗽를 겸하기도 한다. 腹中에 積이 있어 積이 오래되면 發熱하고, 內熱하므로 飲水多하며, 脾虛하여 水穀을 運化하지 못하므로 不能食하며 脈은 沈細하다. 오래되면 脾胃가 虛衰하여 四肢不舉하고 각종 病邪가 쉽게 침범하게 되며 반드시 疳症을 이룬다. 이로 미루어 보면 虛羸는 癖症을 야기할 수 있고, 癖症은 疳症을 야기할 수 있다. 虛羸, 癖症, 疳症은 실제 小兒 脾胃疾病의 輕重의 차이로 부단히 세 가지 단계로 변화하는 것이다.

4. 諸疳²⁹⁾

疳症은 모두 脾胃病으로 津液이 亡하여 發하는 것이다. 大病이나 吐瀉後 藥으로 吐下하면 脾胃가 虛弱하여 지고 津液이 亡하게 된다. 또한 小兒 疳症은 모두 어리석은 醫師가 만든 壞病으로 가령 潮熱과 같은 경우 이는 一臟은 虛하고 一臟은 實하여 發熱하는 것으로 治療는 마땅히 母를 補하면서 本臟을 瀉하여야 치유되는 것이다. 가령 日中에 潮熱을 발하는 것은 心虛熱로 肝은 心의 母가 되므로 마땅히 먼저 補肝하고 肝이 實해지면 그 후에 瀉心하니 心이 母氣를 얻어 平해지면 潮熱이

27)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

28)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 24~25.

29)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 21~23.

治愈되게 된다. 醫師가 潮熱을 보고 이를 實하다 하여 大黃, 牙硝 등과 같은 冷藥으로 利하여 利가 많아지면 禁約하지 못하고 津液이 內亡하여 疳症을 이룬다. 癖症이 오래되면 寒熱을 발하고 飲水하며 脇下에 有形의 硬痛이 있게 된다. 癖症을 치료하는 법은 마땅히 조금씩 消磨하는 것인데 醫師가 도리어 巴豆, 礪砂 등으로 이를 下하면 小兒는 易虛易實한데 下가 과도하여 胃中の 津液이 耗損되어 점차 疳瘦를 이루게 된다.

대저 疳病은 마땅히 冷熱肥瘦를 辨別하여야 한다. 初病者는 肥熱疳이요, 久病者는 瘦冷疳이다. 冷者는 木香丸으로, 熱者는 胡黃連丸으로 主治하며, 冷熱의 疳症은 如聖丸이 더욱 마땅하다. 小兒의 臟腑는 柔弱하여 痛擊하는 것은 不可한데 大下하면 반드시 津液이 亡하여 疳症을 이루게 된다. 대개 下하더라도 大小虛實을 잘 살펴 下하여만 疳症을 이루지 않는다. 初病으로 津液이 약간 있는 자는 마땅히 胃中の 津을 生하여야 하니 白朮散으로 主하면 매우 옳은 것이다.

考察 : 疳證의 病位는 주로 脾胃에 있고, 病因은 傷津하여 유발되는데 久病, 大病 혹은 吐瀉後에 脾胃가 이미 虛한데다 醫師가 誤下, 誤吐하면 吐下太過로 脾胃虛弱이 더욱 심해져 津液이 內亡함으로 인하여 疳症이 형성되는 것이다.

潮熱과 같은 證은 그 病機가 一臟은 實하고 一臟은 虛하므로 治療는 마땅히 母를 補하면서 本臟을 瀉하여야 한다. 가령 日中에 潮熱을 발하는 것(日中은 心經이 主하는 時임.)은 心虛熱이다. 肝은 心의 母이니 마땅히 먼저 補肝(地黃丸을 활용)하여, 肝이 實해진 뒤에는 心熱을 瀉(瀉心湯, 導赤散)한다. 이처럼 心이 母氣를 얻게 되면 母는 能히 子를 實하게 하므로 心虛를 回復하고 心熱을 瀉하면 潮熱을 平해진다. 만약 이를 實證으로 오인하여 大黃, 芒硝類와 같은 苦寒한 藥으로 下하면 泄

利를 禁하지 못하여 津液이 內亡하여 疳證을 이룬다.

또한 腹中에 癖이 있으면 그 症狀은 寒熱을 발하고 飲水하며 脇下有形하여 硬痛하니 治療는 마땅히 점차적으로 消磨하여 癖積을 治療해야 하는데 醫師가 도리어 巴豆, 礪砂類와 같은 瀉下藥으로 攻伐하면 小兒는 易虛易實한데 下가 過하여 胃中の 津液이 耗損되어 점차 疳瘦하게 되는 것이다.

5. 虛實腹脹³⁰⁾

腹脹은 脾胃虛한데 氣가 攻作한 것이다. 實하면 悶亂滿喘하니 紫霜丸, 白餅子로 下한다. 喘하지 않는 자는 虛이니 下해서는 안된다. 만약 誤下하게 되면 脾氣가 虛하게 되어 上附한 肺로 行하여 肺와 脾子母가 모두 虛하게 된다. 肺는 目胞腮과 같은 類를 主하고, 脾는 四肢를 主하는데 母氣虛가 심하면 目胞腮腫하게 되는데 色黃者는 脾에 속하는 것이니 塌氣丸을 사용하여 점차적으로 消하여 치료하며, 낫지 않거든 점점 丸藥의 數를 늘린다. 丁香, 木香, 橘皮, 豆蔻와 같은 大溫散하는 藥으로 치료하는 것은 불가하니 그 이유는 脾의 虛氣가 아직 出하지 않으면 腹脹하나 喘하지는 않아 散藥으로 이를 치료하여 上下를 分消하면 氣가 治유된다. 만약 虛氣가 이미 出하여 肺로 行하게 되면 脾胃內弱한데 每번 虛氣가 生하여 四肢面目으로 入하게 된다. 小兒는 易虛易實하고 脾虛하면 寒溫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차가운 것을 복용하면 生冷하고 脾가 溫하면 生熱하므로 마땅히 잘못하여서는 안된다. 胃가 오래도록 虛熱하면 흔히 痘病을 生하거나 혹은 飲水를 그치지 않으며, 脾虛하면 腎을 勝하지 못하여 肺의 氣를 따라 四肢로 上行한다. 만약 水狀이라면 腎氣가 肺로 浸浮하므로 大喘하니 이는 마땅히 塌氣丸을 복

30)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 25~26.

용하여야 한다. 병이 치유되고서 面이 아직 紅하지 않는 자는 虛衰하여 아직 回復되지 않은 까닭이다.

考察 : 이 條文은 腹脹의 虛實을 辨別과 腫病의 病因을 서술한 것이다. 腹脹은 脾氣가 虛하여 氣가 攻作한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悶亂滿喘을 겸하였다면 이는 中州에 食積하여 大氣室滯하므로 升降이 失利한 까닭이다. 紫霜丸, 白餅子를 사용하여 攻下하여 積滯가 下하기를 기다려 氣機가 暢通하면 實暢은 치유되고 喘悶 또한 이를 따라 해소되는 것이다. 만약 脹하되 喘하지 않으면 이는 中州에 積滯가 없는 虛脹으로 下하여서는 안된다. 誤下하게 되면 脾虛가 肺로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脾는 四肢를 主하고, 肺는 目胞腮를 主하는데 脾肺가 모두 虛하면 四肢面目이 모두 腫하게 된다. 이 외에도 脾虛하면 腎을 制하지 못하여 水濕이 肺氣를 따라 皮膚四肢로 행하여 浮腫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 病機는 脾虛氣滯인 것이다. 만약 虛中에 挾食하면 塌氣丸으로 行氣消積하되 香燥溫散한 藥物을 過用하는 것은 不可하다. 또한 만약 腹脹하되 喘하지 않는 자는 正氣가 아직 渙散되지 않은 것으로 病은 脾에 있어 아직 肺나 腎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니 이 때에는 溫散藥을 활용하여 그 氣를 上下로 分消한다. 만약 脹하면서 喘을 겸한 자는 脾氣가 壅塞하여 위로 肺를 凌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喘하는 것은 虛證이니 마땅히 鎮墮攝納하여 그 衝上하는 것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를 총괄하면 小兒는 易虛虛實하고 脾虛하면 寒溫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차가운 것을 복용하면 生冷하고 뜨거운 것을 복용하면 生熱하므로 處方用藥에 있어서는 이에 잘 맞추어 적당해지면 그쳐야 한다.

小兒의 臟腑는 清靈하여 잘 적응하므로 쉽게

건강을 회복하니 病後에는 마땅히 面色이 紅潤光澤하게 된다. 만약 아직 紅하지 않다면 이는 虛衰하여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病이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니 마땅히 調理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6. 早晨發搐³¹⁾

潮熱로 인하여 寅卯辰時에 身體壯熱하고 目上視, 手足動搖, 口內生熱涎, 項頸急하는 것은 肝旺한 것이니 마땅히 補腎治肝한다. 補腎은 地黃丸이요, 治肝은 瀉青丸으로 主한다.

日午發搐

潮熱로 인하여 巳午未時에 發搐하고 心神驚悸, 目上視, 白睛赤色, 牙關緊, 口內涎, 手足動搖하는 것은 心旺이니 마땅히 補肝治心한다. 治心은 導赤散, 涼驚丸이요, 補肝은 地黃丸으로 主한다.

日晚發搐

潮熱로 인하여 申酉戌時에 搐은 심하지 않으나 喘하고 目微斜視, 身體似熱, 睡露睛, 手足冷, 大便淡黃水하는 것은 肺旺이니 마땅히 補脾治心肝한다. 補脾는 益黃散이요, 治肝은 瀉青丸이며, 治心은 導赤散으로 主한다.

夜間發搐

潮熱로 인하여 亥子丑時에 搐은 심하지 않으나 臥不穩, 身體溫壯, 目睛緊, 斜視, 喉中有痰, 大便銀褐色, 乳食不消, 多睡, 不納津液하는 것은 마땅히 補脾治心한다. 補脾는 益黃散이요, 治心은 導赤散, 涼驚丸으로 主한다.

考察 : 以上の 早晨, 日午, 日晚, 夜間發搐은 肝, 心, 肺, 腎 四臟이 主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脾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脾는 慢驚에 속하며 四時에 旺하는 것으로 나누는 까닭이다.

錢氏는 하루를 四時로 나누고 四臟이 主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寅, 卯, 辰은 木氣가 旺한 時로

31)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8.

肝은 木에 속하므로 肝이 主하는 病이라 하였고, 巳, 午, 未는 火氣가 旺하는 時로 心은 火에 속하니 心이 主하는 病이라 하였으며, 申, 酉, 戌은 金氣가 旺한 時로 肺는 金에 속하니 肺가 主하는 病이라 하였고, 亥, 子, 丑은 水氣가 旺한 時로 腎은 水에 속하니 腎이 主하는 病이라 하였다. 臟氣가 主하는 時가 不同하고, 疾病이 表現되는 時間 또 不同하여 錢氏는 發搐의 時間 및 所主하는 症候로부터 發搐과 相關하는 臟氣를 推斷하였으니 이는 《素問·四氣調神大論》, 《素問·六微旨大論》, 《素問·金匱真言論》 등과 같은 곳에서 사람의 一生을 生長壯老已로, 一年을 生長化收藏으로, 一日을 鷄鳴, 平旦, 日中, 合夜로 나누었으며 肝은 春生을, 心은 夏長을, 肺는 秋收를, 腎은 冬藏을 主하고 脾는 四季에 旺한다고 한 理論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肝氣가 旺한 驚風은 肝木의 氣가 亢盛한 것인데 肝木이 亢盛한 것은 대개 腎氣가 虧損하여 肝木을 養하지 못한 까닭이므로 錢氏는 地黃丸을 사용하여 腎水를 補하므로써 肝을 養하면서 때로는 瀉靑丸을 사용하여 肝木의 亢盛한 邪氣를 억제하였다. 心氣가 旺한 驚風은 心火의 氣가 上炎한 것인데 心火의 氣가 上炎한 것은 대개 肝血이 虛損하여 心火를 上濟하지 못한 까닭이므로 地黃丸으로 肝血을 補하므로써 濟心하며 동시에 導赤散을 사용하여 心火上炎한 邪氣를 下趨하고 다시 涼驚丸으로 風火가 相煽하는 것을 折하였다. 肺氣가 標旺하고 本虛한 驚風은 燥金의 氣가 不及한 것인데 燥金의 氣가 不及한 것은 대개 脾氣가 精微를 散하지 못하여 肺로 歸하지 못한 까닭이므로 益黃散으로 補脾하여 肺의 化源을 滋養함과 동시에 瀉靑丸으로 制肝하여 脾를 克하지 않도록 하며 다시 導赤散을 사용하여 心火를 下行하여 肺陰을 克하지 못하도록 하여 肺氣의 清肅을 회복시킨다. 腎

氣가 標旺하고 本虛한 驚風은 脾虛하여 水濕이 泛濫한 결과이니 마땅히 益黃散을 사용하여 補脾하면서 水濕을 運하며 동시에 導赤散으로 心火를 下降하여 水邪를 外로 瀉한다. 만일 水氣가 下로 泛濫하고 風火가 上으로 熾盛한 자는 다시 涼驚丸로 瀉火寧風한다.

이로 미루어 錢氏가 驚搐을 네 가지로 분석한 것은 臟腑間의 生克關係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臟腑間의 整體觀念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急驚³²⁾

큰 소리를 듣거나 혹은 大驚하므로 인하여 搐症을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는 無陰으로 마땅히 下하니 利驚丸으로 主한다.

小兒의 急驚은 본래 心에서 熱이 生한 것으로 身熱面赤引飲, 口中氣熱, 大小便黃赤하고 劇하면 搐한다. 대개 熱이 심하게 되면 風을 生하는데 風은 肝에 屬한 것으로 이는 陽盛陰虛한 것이다. 따라서 利驚丸으로 그 痰熱을 除하되 巴豆 및 溫藥 大下하는 藥은 不可하니 恐蓄된 虛熱이 消하지 않을 것 같아서이다. 만약 小兒의 熱痰이 心胃에 客하고 聞聲이 正常的이지 못하면 動하여 驚搐하며, 만약 熱이 極하면 비록 聞聲하지 않고 놀래지 않더라도 역시 搐을 發하게 된다.

考察 : 본 條文은 小兒 急驚의 原因, 症狀 및 治法을 서술한 것이다. 小兒의 急驚은 外部로부터 驚恐을 받아 心神이 搖亂하거나 혹은 痰熱이 心胃에 客하여 熱盛하여 風을 生하거나 혹은 外部로부터 驚恐을 받고 內部에 痰熱이 있어 발한다. 그 病機는 陽盛陰虛를 벗어나지 않으니 熱이 極하면 風을 生하며 病은 心肝에 있는 것이다. 만약 驚恐만으로 發搐하면 일반적으로 搐은 심하지 않고 搐을 발한 후 바로 정상으로 회복하니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 身熱面赤, 口渴引飲, 口中氣熱,

32)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10.

大便黃, 小便赤하고 劇하면 驚搐하는 것은 心火가 亢盛하고 肝風이 動하며 痰熱이 阻한 驚搐으로 利驚丸으로 下하여 痰熱을 除하고 心火를 降하며 肝風을 平케하면 驚搐이 安正되게 된다. 巴豆 및 기타 溫藥으로 下하는 것은 불가하니 그 熱을 도와 陰氣를 竭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傷食으로 發搐하였을 때 溫下法을 活用하는 것과는 不同하다.

8. 慢驚³³⁾

病後나 吐瀉로 인하여 脾胃가 虛損되어 遍身冷, 口鼻氣出亦冷, 手足時痙攣昏睡, 睡露睛하는 것으로 이는 無陽이니 栝蒌湯으로 主한다.

대개 急慢驚은 陰陽異證이니 마땅히 이를 잘 辨別하여 治療하여야 한다. 急驚은 涼瀉가 마땅하고, 慢驚은 溫補가 마땅하다. 世間の 俗方에서는 흔히 이를 잘 辨別하지 않아 小兒에게 誤治하는 것이 매우 많다. 또 小兒가 風冷에 傷하여 吐瀉하면 醫師가 脾虛라 하여 溫補하다 낫지 않으면 다시 涼藥으로 治療하며 또 낫지 않으면 본래 傷風이라 하여 醫師가 이를 攻한다. 脾氣가 虛하여 內에서 散하지 못하고 外로 解하지 못하여 10여일이 되면 그 症狀은 睡露睛, 身溫하게 되고, 風邪가 脾胃에 있어 大便이 不聚하여 瀉하니 마땅히 脾間의 風을 祛하여야 하는데 風退하면 利도 그치게 된다. 宣風散으로 주하고서 나중에 使君子丸을 사용하여 脾胃를 補한다. 마찬가지로 諸吐利가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脾虛하여 風을 生하고 나중에 慢驚을 이루게 된다.

考察 : 본 條文은 慢驚의 成因, 症狀 및 治法을 서술한 것이다. 小兒가 病後나 혹은 吐瀉後에 脾胃의 氣가 損傷되면 脾虛하여 生風하여 慢驚을 이루게 되고 그 症狀은 遍身冷, 口鼻氣出亦冷, 手足時抽搐, 昏睡, 睡時露睛, 大便泄瀉 등이 나타나

니 이는 모두 脾虛陽衰한 까닭이다. 急驚은 痰熱이 心胃에 客한 陽盛하되 陰虛한 것이니 마땅히 涼瀉法을 活用하며, 慢驚은 脾虛無陽한 것이니 마땅히 溫補法을 活用한다.

慢驚은 흔히 誤治하여 말하니 예를 들어 小兒가 外感風冷하여 吐瀉하면 마땅히 風冷을 發散하여야 하는데 만약 溫補한 뒤에 낫지 않으면 다시 涼藥을 쓰고 또 낫지 않으면 다시 攻伐하게 되면 脾虛를 유발하여 邪氣가 外散하지 못하고 正氣가 內守하지 못하여 多睡, 露睛, 身溫, 泄瀉 등이 나타나게 된다. 마땅히 먼저 風邪를 祛하면 風退한즉 利도 止하니 宣風散을 活用할 수 있으며 다음에 使君子丸을 사용하여 胃를 補한다.

V. 醫 案

1. 肺熱咳嗽變證案³⁴⁾

東都 張氏의 9세된 손자가 肺熱病을 앓게 되었는데 다른 醫師들이 犀, 朱, 龍, 麝, 生牛黃으로 이를 治療하였다. 한 달이 되도록 낫지 않고 咳嗽悶亂, 飲水不止, 全不能食하였다. 錢氏가 使君子丸, 益黃散을 사용하니 張氏가 "본래 熱이 있는데 어찌하여 또 다시 溫藥을 사용하십니까? 다른 醫師들은 涼藥을 사용하여 이를 攻하기를 한 달이 되는데도 낫지 않았습니다."라고 묻자 錢氏가 "涼藥을 오래도록 活用한 즉 寒하여져 不能食한 것입니다. 小兒가 虛한데다 不能食하니 마땅히 補脾하여 飲食이 정상적이 되거든 肺經을 瀉하면 病은 반드시 治愈됩니다."라 하였다. 補脾藥을 이틀동안 복용하자 비로소 飲食을 먹게 되니 錢氏가 瀉白散으로 肺經을 瀉하여 그 병을 낫게 하였다. 張氏가 "어찌하여 虛하지 않다 하십니까?"라고 묻자 錢氏가 "먼저 脾를 實하게 한 연후에 瀉肺하므로 虛하

33)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 10~11.

34)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 37~38.

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考察：本案은 본래 肺熱이 그 원인이니 만약 일찍 瀉肺清熱한 藥을 투여하였다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醫界에서는 습관적으로 犀角, 朱砂, 龍腦, 麝香, 牛黃 등과 같은 涼鎮香竅한 약물을 사용하여 耗陽劫陰하고 中氣를 損傷케하니 服藥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치료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嗽喘悶亂, 飲水不止, 全不能食하게 된 것이다. 脾氣가 大傷하여 轉輸機能을 잃고 中에 積滯하므로 全不能食한 것이며, 脾胃津傷하고 鬱熱이 裏에 있어 飲水하고자 하니 口渴不止한 것이다. 이때는 비록 嗽喘하더라도 脾胃中虛가 病機의 主要關鍵이 되니 錢氏는 먼저 使君子丸으로 消積清熱하고 다시 益黃散으로 補脾土하여 脾가 健運하고 胃가 능히 受納하면 飲食을 먹을 수 있게 되고 肺氣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瀉白散을 활용하여 肺를 瀉하면 肺熱嗽喘의 症狀이 낮게 된다.

2. 脾虛發熱津傷渴飲案³⁵⁾

朱監簿의 5세 자식이 夜間에 發熱하다 새벽이 되면 괜찮았다. 여러 醫師가 傷寒이나 熱로 보고 涼藥으로 解하고자 하였으나 치유되지 않고 多涎而喜睡하는 症候가 나타났다. 어떤 醫師가 鐵粉丸으로 涎을 下하고자 하니 그 病이 더욱 심해져 5日째가 되니 크게 引飲하였다. 錢氏가 “下하여서는 안된다.”라 하고 바로 白朮散 분말 1兩을 3升이 되게 다려 그汁을 임의로 복용케 하였다. 朱生이 “마시는 양이 많으면 泄瀉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錢氏가 “生水가 없으면 瀉하지 않으며, 瀉가 不足하면 怪異한 것이나 下하여서는 안된다.”라 하였다. 朱生이 말하길 “먼저 어떤 病부터 치료하여야 합니까?”라고 하니 錢氏가 “止渴治痰하고 退熱清裏하는 것이 모두 이 藥이다.”라고 하였다. 저녁

이 되어 복약이 끝나니 錢氏가 다시 살펴보고 “다시 3升을 복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다시 白朮散을 다려 3升을 복용하니 점차 병이 낮기 시작하였다. 3日째 다시 白朮散 3升을 복용하니 그 자식이 渴하지 않고 涎도 없어졌다. 다시 阿膠散을 2회 복용하니 모두 치유되었다.

考察：病을 앓고 있는 小兒가 夜間에는 熱하다 아침이 되면 涼한 것은 대부분 食積에 속하는 것이니 마땅히 消食導滯하는 藥을 활용하여 積이 去하고 食이 消하기를 기다리면 熱이 退하게 된다. 그렇지만 醫師가 傷寒發熱로 보고 치료하여 表를 傷하였고, 裏熱을 치료한다고 寒涼한 藥을 투여하니 다시 그 中氣가 虛해진 것이다. 脾氣가 虛하게 되면 그 症狀은 多涎而喜睡하게 된다. 후에 다시 攻痰鎮墮하는 藥인 鐵粉丸을 誤用하여 그 脾가 더욱 虛해졌으며, 病情이 加重되어 氣가 津으로 化하지 못하여 口渴이 그치지 않은 것이다. 錢氏는 白朮散으로 止渴治痰, 退熱清裏하니 모두 中土를 보살핀 것으로 所謂 中土를 培함으로써 四旁을 灌한 것이며, 寒涼攻伐의 태과로 脾陽이 損傷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임의로 복용시킨 이유는 첫째, 脾土가 이미 損傷되어 적으면 病은 重한데 藥이 輕하면 濃煎하여 자주 마시는 것만 못한 때문이요, 둘째, 患兒가 口渴引飲하므로 湯劑를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能히 解渴하며 또한 能히 治病하니 이는 확실히 胃津體液을 보충하는 妙法인 것이다. 후에 다시 阿膠散을 활용한 것은 脾虛한 뒤에는 肺氣 또한 손상되고 外邪가 表에 戀하게 되니 阿膠散을 활용하여 肺陰을 滋하고 表邪를 散하며 中土를 培하면 肺脾가 회복되고 外邪도 能히 散하여 그 병은 치유되는 것이다.

3. 脾虛傷食泄瀉案³⁶⁾

黃承務의 1세된 자식이 瀉病하는데 여러 醫師

35) 錢乙：小兒藥證直訣，서울，醫聖堂，1994. pp. 40~41.

36) 錢乙：小兒藥證直訣，서울，醫聖堂，1994. p. 43.

가 이를 그쳤다. 10餘일이 되니 靑白色의 便을 보는데 乳物이 消化되지 않고 身涼, 哽氣昏睡하여 醫師가 困篤病이라 하였다. 錢氏가 먼저 益黃散을 3회, 補肺散을 3회 복용시키니 3일이 되어 身溫하고 哽氣하지 않았다. 다시 白餅子로 약하게 下하면서 益黃散을 2회 복용하니 泄瀉가 그쳤다.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으니 "利는 본래 脾虛傷食한 것이니 처음에는 大下하지 않는다. 10일이 되도록 놓아두니 上實下虛하고 脾氣弱하여 肺도 虛해진 것이다. 脾肺를 補하여 病이 退하면 溫해지며 哽氣하지 않게 된다. 傷食이 있는 바 이내 이를 下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왜 먼저 下한 후에 補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니 "變靑한 것은 臟冷한 것이니 먼저 下하면 반드시 大虛해진다. 먼저 脾肺를 實하게 하고 下하면 虛하지 않으며 이후에 다시 이를 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考察 : 本證 初起는 본래 脾虛한데 乳食不消하여 泄瀉하는 것이니 치료는 마땅히 健脾助運, 消食止瀉하여야 한다. 止瀉劑를 誤用하여 消化機能이 다시 滯하게 되고 宿食不化하여 脾肺兩虛를 유발한 것이다. 脾虛臟冷하므로 大便이 靑冷色白하면서 不消化物이 나오면서 또 昏睡身涼하고 肺虛하므로 哽氣한다. 錢氏는 먼저 益黃散을 사용하여 補脾하고 다시 補肺散으로 益肺하여 目前의 危急한 症을 治療하였으니 脾陽이 회복되므로 身溫하여지고 肺氣가 회복되므로 哽氣가 除하게 된다. 病은 傷食積滯가 제거되지 않은 때문이니 계속하여 滯한 것을 導하고자 白餅子를 사용하여 下하며, 下한 뒤에는 다시 益黃散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종류의 先補後攻하고 攻한 뒤 다시 補하는 치료법은 小兒의 脾가 항상 부족하고 易虛易實하는 특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伏熱吐瀉案³⁷⁾

廣親宅 四大王宮의 王太尉가 吐瀉不止하는 病에 걸쳐 水穀不化하여 여러 醫師가 補藥을 사용하면서 薑汁을 調服하였다. 六月中 濕藥을 복용하니 하루는 喘하면서 嘔吐가 안정되지 않았다. 錢氏가 말하길 "마땅히 涼藥으로 치료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傷熱在內한 것으로 石膏湯을 3회 복용하고 다시 복용한다."고 하였다. 여러 醫師들이 모두 "吐瀉가 많고 米穀不化하니 마땅히 補脾하여야 하는데 어찌 涼藥을 사용하는가?"라 하고 믿지 못한 여러 醫師들이 다시 丁香散을 3회 복용하게 하였다. 錢氏가 나중에 와서 말하길 "이를 복용하여서는 안된다. 3일이 되지 않아 반드시 腹滿身熱, 飲水吐逆할 것이다."라 하였으니 3일이 되지 않아 말한 바처럼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六月의 熱甚한 것이 腹中에 伏入하므로 引飲케하고, 熱이 脾胃를 傷하니 大吐瀉한 것이다. 다른 醫師들이 또 溫藥을 사용한 즉 上焦 또한 熱하여 喘하면서 引飲하니 3일이면 죽게 되어 여러 醫師들도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錢氏가 다시 宮中の 부름을 받고 들어가서 살펴니 熱證이 보여 白虎湯을 3회 복용하고 다시 白餅子로 下하였다. 1일째에는 藥을 2分으로 減하였으며, 2日, 3日에는 白虎湯을 각 2회 복용하고, 4日에는 石膏湯을 1회 복용하였으며, 바로 麥門冬, 黃芩, 腦子, 牛黃, 天竺黃, 茯苓을 합하여 朱砂를 입혀 5丸을 竹葉湯으로 복용하니 熱이 退하면서 안정되었다.

考察 : 吐瀉가 그치지 않고 水穀不化하면 마땅히 寒熱虛實을 辨別한다. 일반적으로 久病은 주로 虛寒에 속하고, 新病은 주로 實熱에 속하니 마땅히 兼症을 살펴 이를 辨別하여야 한다. 본 條文은 錢氏가 여러 醫師들이 溫補藥으로 치료하여도 無效하여 嘔吐가 안정되지 않고 도리어 喘症까지 발하게 되었고, 또 病이 六月에 발하였으니 이 때

37)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 41~42.

는 大暑地熱하여 小兒가 쉽게 暑熱의 邪氣를 감수하게 되므로 伏熱이 裏에 있음을 안 것이다. 熱이 脾胃를 傷하여 大吐瀉하였으니 이 邪熱은 殺穀하지 못하고 아울러 虛寒이 아니므로 消穀하지 못하는 吐瀉가 발한 것으로 마땅히 石膏湯을 응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다 病家가 또한 丁香散과 같은 溫中散寒하는 藥을 복용하여 腹滿身熱, 飲水吐逆, 喘而引飲하게 되었으니 이는 肺胃의 氣가 곧 絶하려는 징후이다. 錢氏가 白朮湯으로 陽明의 燥邪를 淸게하고, 白餅子로 胃腸의 食積을 除한 뒤 다시 養陰淸肺, 涼心安神하는 藥으로 虛熱을 退하고 津液을 회복하였으니 이 치료법이 正當한 것이다. 아울러 점차 藥量을 감소하여 退하면 점차 늘려 臟腑血氣가 調和되면 諸症이 平안해진다. 본 條文은 현재 臨床에서 完穀不化한 症을 단순하게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啓發한 것으로 寒中에는 溫藥을 사용하면서도 마땅히 季節과 服藥前後의 變化에 注意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5. 脾虛中寒吐瀉案³⁸⁾

廣親宮 7歲된 七太尉가 吐瀉하였다. 때는 7월로 그 症狀은 全不食하며 昏睡하고, 잠을 자다 깨면 悶亂哽氣하며, 乾嘔, 大便或有或無, 不渴하였다. 여러 醫師가 涼治하였으나 昏睡가 여전하였다. 錢氏가 "먼저 補脾하고 다음에 退熱하니 使君子丸으로 補脾하며, 退熱은 石膏湯을 活用한다."라 하였으며, 다음 날 또 水銀, 硫黃 二物로 下하면서 生薑水 一字를 調下하였다. 錢氏가 "대개 吐瀉는 五月內에는 九分은 下하며 一分은 補하고, 八月內에는 十分은 補하되 一分의 下도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脾虛瀉인데 醫師가 잘못 치료하여 虛損케 되어 下하다 秘한 것이다. 마땅히 補脾하는데 使君子丸은 緩하여 錢氏는 溫胃益脾하는 藥을 중지하였다. 李生이라는 醫師가 "어떻게 食而噦합니

까?"라고 묻자 錢氏가 말하길 "脾虛하면 不能食하고, 津少한 즉 呃逆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떻게 青褐水를 瀉합니까?"라고 묻자 "腸胃가 虛하여 冷이 極한 것이다."라고 답하였으며, 錢氏가 치료하지 치유되었다.

考察 : 본 案의 吐瀉는 7월에 발생한 것으로 患兒가 脾虛하여 運化無力하므로 不能食而昏睡하고, 脾虛가 肺까지 영향하여 氣機上逆하므로 悶亂哽氣乾嘔하며, 不食하므로 大便이 或有或無한 것이고, 熱이 勝하지 않으므로 口不渴한 것이다. 錢氏는 먼저 使君子丸으로 補脾理氣, 滯腸止瀉하고, 다음에 石膏湯으로 蘊熱을 退하며, 다음 날 또 水銀, 硫黃 二物을 生薑湯에 調下하여 下한다. 積滯가 이미 去하고 脾胃가 虛하니 溫養함이 마땅하므로 溫胃益脾하는 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야 한다.

本案은 脾氣不運하고 胃津不充한데는 마땅히 白朮散을 活用하는데 어떻게 使君子丸을 活用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白朮散에는 葛根이 있어 胃氣를 升動케 하므로 淸氣가 下陷한 證에는 마땅하지만 本案처럼 小兒가 본래 嘔吐하고 또 呃逆하는 것은 胃家の 濁氣가 上升한 것이므로 白朮散을 사용하지 않고 使君子丸을 사용하는 것이다.

6. 發熱涼下太過致成虛勞案³⁹⁾

朱監薄的 3세된 자식이 恣히 發熱하였다. 醫師가 "이는 心熱로 腮赤而唇紅, 煩躁引飲하니 牛黃丸을 3회 복용하고 一物瀉心湯으로 下한다."라고 하였다. 다음 날에도 낫지 않고 도리어 無力, 不能食하며 便利黃沫하였다. 錢氏가 "心經이 虛한데다 留熱이 內에 있는데다 涼藥으로 下하여 虛勞가 된 病이다."라 하고, 먼저 白朮散으로 胃中の 津을 生한 후에 生犀散으로 치료하였다. 朱氏가 "大便黃沫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묻자, 답하기를 "胃氣가 바르게 되면 瀉도 자연스럽게 止

38)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 42~43.

39)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41.

하니 이는 虛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朱氏가 “醫師가 瀉心湯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묻자 錢氏가 “瀉心湯이라는 것은 黃連의 性은 寒하여 多服하면 利하고 능히 脾胃를 寒게 한다.”라 하였다. 오래도록 앓아있던 여러 醫師들이 와서 “實熱이다.”라고 하자 錢氏가 말하길 “虛熱이다. 만약 實熱이라면 瀉心湯으로 下하였는데 왜 不安하고 또한 面黃頰赤, 五心煩躁, 不食하며 引飲하겠는가?”라 하였다. 醫師들이 “虛熱이라면 어찌 大便黃沫함니까?”라고 묻자 錢氏가 웃으면서 말하길 “便黃沫인 것은 瀉心湯을 多服한 까닭이다.”라 하였으며, 錢氏는 후에 胡黃連으로 치유하였다.

考察 : 혼연히 發熱하고 腮赤唇紅, 煩躁引飲하는 것은 心熱이 위주가 되는 것이니 마땅히 心肺의 熱을 清케 하는데 滌飲攻痰하는 方劑인 牛黃丸과 苦寒涼遏하는 藥物인 一物瀉心湯을 誤用하여 寒泄太過하면 脾陽이 損傷되어 도리어 無力, 不能食, 大便淡黃稀沫하므로 錢氏는 먼저 白朮散을 사용하여 運脾止利, 進食生津함으로써 藥物을 誤用하여 나타난 것을 치료하였으며, 病因이 心經虛에 熱이 體內에 머물러 있는 까닭이니 나중에 清心涼血하는 生犀散으로 心經의 虛熱을 치료하였다. 生犀散에는 柴胡, 乾葛, 升麻와 같은 藥物이 있어 升清散邪하나 涼藥으로 傷中하는 것은 아니다. 後에 胡黃連丸을 사용한 것은 誤治한데다 寒藥으로 傷中하여 비록 發熱은 치료되었다 하더라도 점차 疳瘦를 이룰 수 있으므로 활용한 것이다.

7. 傷食成癖案⁴⁰⁾

曹宣德의 3세된 자식이 面黃, 時發寒熱, 不欲食하며 水나 乳만 마셨다. 여러 醫師들이 潮熱이라 하여 牛黃丸, 麝香丸을 사용하는데도 치유되지 않고, 止渴하기 위해 乾葛散을 복용하니 도리어 嘔

吐를 하였다. 錢氏가 말하길 “마땅히 白餅子로 下한 뒤에 補脾한다.”라 하고 消積丸으로 이를 磨하니 癖이 치유되었다. 그 연유를 물으니 “不食하나 단 飲水하는 것은 管內에 食伏하여 能히 消化하지 못하여 發寒하는 것이며, 止渴藥을 복용하여 嘔吐하는 것은 藥이 沖한 까닭이니 下하면 치유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考察 : 本案의 時發寒熱하고 겸하여 面黃, 不欲食하며 水나 乳를 飲하는 것은 內에 食積하여 脾胃의 消化가 無力한 것이다. 牛黃丸, 麝香丸과 같은 退熱藥을 활용하여 치유되지 않은데다 止渴하기 위해 乾葛散을 활용하면 胃氣가 上升하여 嘔吐하게 된다. 錢氏는 白餅子로 下하고, 消積丸으로 磨하여 食積을 消하고 脾의 運化機能을 회복하면 癖病이 치유된다. 그렇지만 小兒의 正氣가 未充하여 峻攻을 감내하지 못하므로 消下한 뒤에는 모름지기 補脾를 하여야 하니 邪氣를 去하더라도 正氣는 傷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8. 脾虛慢驚, 腎虛失音案⁴¹⁾

東都 王氏의 자식이 吐瀉한데 여러 醫師들이 이를 下하여 虛하게 되더니 慢驚으로 변하였다. 그 症候는 睡露睛, 手足痠痿하며 身溫하였다. 錢氏가 “慢驚을 止하려면 枯薑湯을 활용한다. 그 자식의 胃氣가 實하므로 開目하며 身溫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王氏는 자식이 大, 小便을 보지 못하는 것에 의심하여 醫師로 하여금 藥으로 利케하니 醫師들이 八正散 등을 여러 번 복용케 하는데도 利하지 않고 몸이 도리어 冷해졌다. 錢氏에게 小便을 利케 하라 하니, 錢氏가 “利小便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利하면 반드시 身冷한다.”라 하였다. 王氏가 “이미 身冷하니 出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자 錢氏가 “不能食하여 胃中이 虛한데 만약 利大 小便한 즉 死한다. 오래되어 脾胃가 모두 虛하여

40)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45.

41)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 35~36.

身冷하고 閉目하나 다행히 胎氣가 實하여 衰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고 益黃散, 使君子丸을 4회 복용시키고 微飲食하게 하니 점심쯤부터는 能히 飲食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 것은 利大小便하여 脾胃가 虛寒하게 되면 마땅히 補脾하되 별도로 攻하는 것은 不可하다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다시 不語하는데 여러 醫師들이 失音으로 보고 치료하였다. 錢氏는 “흔히 失音은 開目하고 能히 飲食하며, 또한 牙不緊하고 口不緊하는 것이다. 여러 醫師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라 하고 地黃丸으로 補腎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清藥을 사용하여 利小便하면 脾胃이 모두 虛하게 되는데 지금 脾는 이미 實하고 腎虛하므로 補腎하면 반드시 안정되는 것이다. 치료한 지 반 개월이 되자 능히 말을 하게 되었고, 한 달이 되어 완전히 치유되었다.

考察 : 本案의 치료는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처음에는 吐瀉에 攻下하는 藥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脾胃虛寒하여져 慢驚을 이루게 되어 睡時露睛, 手足瘳瘳하며 身冷하는 症狀를 보일 때 錢氏는 栝蒌湯을 사용하였다. 약을 복용한 후 患兒의 胃氣가 점차 實하여진 즉 目開氣溫하고 病이 好轉되었다. 이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患兒가 不大小便하여 醫師가 八正散 등과 같은 利尿藥을 사용하여 다시 虛虛實實의 戒를 범하게 되어 陽氣가 損傷되고 二便이 不利하며 身이 다시 冷하여졌으며 또한 不能食하게 되었다. 錢氏는 다시 二便을 利케하면 死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니, 만약 다시 利下하면 脾胃虛寒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益黃散, 使君子丸으로 補益中宮, 運化水穀하되 攻下를 忌하였으니 이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脾氣가 점차 회복되고 目開能食, 牙口不緊하나 不語하자 錢氏는 地黃丸으로 補腎하였다. 처음에

清利藥으로 利小便하여 脾胃이 모두 虛하여져 補脾法으로 脾를 實하게 한 후에 단지 腎虛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補腎하는 地黃丸을 사용하니 반 개월정도 지나자 치유된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本案으로부터 錢氏가 小兒의 脾胃를 중시하여 調治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9. 驚搐發斑案⁴²⁾

五大王宮의 王太尉가 어느 가을 날 추락하고 나서 驚搐을 發했다. 醫師가 發熱藥으로 치료하였으나 치유되지 않았다. 錢氏가 “본래 急驚하면 후에 大熱이 生하니 마땅히 먼저 그 熱을 退하여야 한다.”라 하고 大黃丸, 玉露散, 惺惺丸에 牛黃, 麝香을 加味하여 이를 解하였으나 낫지 않았으며, 三日이 되니 肌膚가 熱하였다. 錢氏가 “다시 二日이 되도 낫지 않으면 반드시 斑瘡하게 되니 대개 熱이 出하지 못한 때문이다. 다른 醫師가 처음에 藥으로 發散하니 發散이 表에 入하게 되었고 表가 熱한 즉 斑이 生하게 되는 것이다. 본래 처음 驚할 때는 마땅히 利驚藥으로 下하여야 되는데 지금 發散하였으니 逆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들 후 斑이 出하게 되었으며 必勝膏로 이를 치료하니 七日에 되어 치유되었다.

考察 : 本案은 추락으로 인하여 驚恐한 것으로 驚하면 氣亂하고 恐하면 氣下하여 氣機가 紊亂하여지고 陰陽升降이 失常하여 搐을 發한 것이다. 이 때에는 마땅히 利驚藥(利驚丸 등과 같은 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처음 醫師가 辛溫發表하는 藥을 誤用하여 熱이 泄하지 못하니 도리어 陰液을 傷하게 된 것이다. 비록 錢氏가 大黃丸, 玉露散으로 降火泄熱하고, 惺惺丸으로 安神鎮驚하며, 다시 牛黃, 麝香 등을 加味하여 清心開竅하였으나 결국에는 邪熱이 肌膚에 鬱하여 “斑瘡”을 형성한 것이

42)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 38~39.

다. 斑이出汗 후에 必勝膏을 사용하여 치유된 것은 牛李子の 酸寒으로 大熱을 淸게하고 아울러 解毒한 까닭이다.

10. 自汗異治案⁴³⁾

張氏의 세 자식이 病이 들었는데 큰애는 遍身이 汗하고, 둘째는 頂部에서 胸까지 汗하며, 막내는 단지 額部에만 汗出하였다. 여러 醫師들이 麥煎散으로 치료하였으나 不效하였다. 錢氏가 이르길 “큰애는 香瓜丸이요, 둘째는 益黃散이며, 막내는 石膏湯이다.”라 하고 五日이 되니 치유되었다.

考察 : 세 자식이 모두 自汗症이 있으나 단지 出汗部位가 서로 不同하므로 虛實寒熱을 分辨하여야 한다. 큰애는 遍身汗出하며 汗出身溫, 苔黃, 脈數實 등의 證을 겸하고 있으니 實火에 속하는 것이므로 香瓜丸을 사용하여 치료하였고, 둘째는 頭頂에서 胸部까지 汗出하고 肢冷納少, 身瘦, 腹大, 大便泄瀉 등의 症을 겸하고 있으니 中虛에 속하는 것이므로 益黃散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며, 막내는 단지 額部位에서만 出汗하는데 陽明脈이 髮際를 循하고 額顙에 이르니 額部出汗은 陽明裏熱로 볼 수 있으며 또한 口乾, 多飲, 面赤舌紅 등의 症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錢氏는 同病異治하는 방법을 채용하였으니 그 결과 五日만에 치유되었다. 다른 醫師들은 寒熱虛實을 分辨하지 않고 한 가지 개념만 가지고 치료하니 不效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辨證論治의 중요함을 살펴볼 수 있다.

VI. 結 論

錢乙의 學術思想이 後世에 미친 影響과 主要方劑, 醫論 및 醫案에 대하여 살펴보았던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錢乙의 小兒의 生理病理에 대한 特徵과 小兒의 脾胃를 重視한 見解 및 小兒科方劑에 대한 創方 등은 小兒科學 발전의 기틀을 이루어, 수많은 醫家들에게 影響을 미쳤는데, 明代의 萬全은 五臟辨證을, 清代의 吳塘은 小兒體質學說 및 小兒科用藥論을, 最近의 惲鉦樹는 驚風說을 繼承하였다.

2. 錢氏의 五臟虛實證治와 脾胃를 중요시 여기는 사상은, 張元素의 臟腑病機辨證과 李東垣의 脾胃論에 影響을 주어 易水學派의 醫學思想에 커다란 影響을 미쳤고; 그는 小兒의 腎陰을 補益하는 地黃丸을 創方하였는데, 李東垣朱震亨薛己張景岳 등에 影響을 주어 補腎의 一大法門이 되어 滋陰學派의 先驅者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錢乙이 方劑學에 미친 影響 또한 지대하여 최근에 유행하는 많은 方劑專書에는 모두 錢氏의 方이 들어 있어 臨床醫가 활용하기도 하나 歷史的 制限으로 인하여 不足한 부분이 있고, 金石重墮하거나 毒性猛烈한 약물처럼 최근에는 활용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4. 錢乙의 醫論은 《直訣》의 總綱인 “五臟所主”와 “五臟病”은 小兒科 學術特徵을 반영하였고; 小兒脈法에서는 小兒의 常見脈象과 所主症候를 서술하였으며; 腹中有癖에서는 小兒의 脾胃虛弱으로 인하여 癖症을 이루어, 乍涼乍熱하여 嘔吐 潮熱과 유사하며 飲水多, 不能食하고 그 脈은 沈細하며 혹은 喘咳를 겸하기도 하는데, 虛羸는 癖症을 야기할 수 있고, 癖症은 疳症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虛羸, 癖症, 疳症은 실제 小兒 脾胃疾病의 輕重의 차이로 설명하였고; 早晨發搐에서는 驚搐을 네 가지로 분석하여 臟腑間

43) 錢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 41.

의 生克關係로 설명하였다.

術出版社, 1985.

5. 錢乙의 醫案內容을 요약하면 소이는 항상 脾胃의 기능이 부족하고 易虛易實하므로 補脾胃를 爲主로 辨證論治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1. 金完熙 外編 : 漢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의사학교실 : 中醫歷代各家學說, 年度未詳.
3.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 中國醫學史, 1997.
4.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1985.
5.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6. 賈維誠 : 三百種醫籍錄, 哈爾濱,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2.
7. 甄志亞 :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8. 北京中醫學院 :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9. 俞景茂 編 :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10. 李東垣 外 :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1. 印會河 主編 : 中醫基礎理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12. 任應秋 主編 :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13. 錢 乙 :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14. 陳大舜 主編 : 中醫各家學說, 湖南科學技